선도 · 균여 · 대행… 선지식 조명 '눈길'

동국대 2019년 하반기 불교 박사학위는 (下)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에서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박사가 16명이 배출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기재한다. 다만, 저자 요청으로 미공개된 논문들은 제외했다. 〈편집자 주〉

"대행선사, 성불 의미 현대적 구현"

혜교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묘공 대행의 '한마음주인공(主人空)' 사상 연구'는 대행 선사의 대표 사상인 '한마음주인공'과 '오공(五共)'의 개념을 중층적 시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혜교 스님의 한마음주인공의 의미를 대행 선사의 법문을 분석해 15가지로 나눠 고찰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대행 선사가 한마음을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라고 강조한 이유는 중생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부처의 삶으로 전환돼야 인간으로 태어나 한 생을 사는 보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험하며 그 법문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해 높일 수 있어야 '묘공 관법' 수행을 출 · 재가자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수행론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음주인공과 오공의 상호 작용 관계에 대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혜교 스님은 "한마음주인공과 오공은 상호 불가불리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스님은 "오공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통신한다. 함께 더불어 살고 마음을 내니 하나라 할 것도 없고 둘이라고 할 것도 없는 둥글게 찬 한마음이 됐다"면서 "오공은 한마음주인공에 근원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한마음을 실현하는 실천원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묘공 관법의 체계를 분석하고 한마음주인공 사상을 게송과 평등공법으로 조망하는 등 대행 선사의 핵심 사상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냈다. 혜교 스님은 "대행 선사는 불교의 지혜와 깨달음, 해탈 열반이라는 성불의 의미를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재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정토종 聖者 선도' 사상 망라

선도(善導, 613 ~ 681)는 당나라 정토종 3조로 정토종이 융성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혜덕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선도의 정토관 연구'를 통해 정토종 대성자(大聖者)로 불리는 선도의 정토관을 면밀히 분석했다.

혜덕 스님은 선도의 정토사상을 '보신보토(報身報土)의 정토관'이라고 봤다. "일체의 범부가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혜덕 스님은 "선도는 범부를 위한 본원의 칭명염불을 강조하며 단 일성만으로도 왕생이 가능하며, 오역중죄와 정법비방자까지도 왕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교화했다"면서 "선도가 보살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정업을 닦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엄행자의 서원 '보현십원가'

석도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균여의 보현행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을 통해 고려 광종 대에 활약한 균여(923~973) 스님의 보현행원 사상과 중도 실천을 고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균여의 보현행원이 한국 화엄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폈다.

석도 스님에 따르면 균여는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중 상당수가 화엄학과 관련되며 그 수는 10종 65권에 이른다. 특히 석도 스님은 균여의 저술 중 '보현십원가'를 주목했다.

'보현십원가'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사뇌가의 형식을 빌려 지은 것으로 균여는 〈화엄경〉의 보현행원을 대중 포교의 근본 사상으로 삼았다.

석도 스님은 "'보현십원가'는 부처와 중생,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무이(無二)의 관계 속에서 대비심을 일으켜 행원을 실천하겠다는 균여의 중도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라고 주장했다.

'해인삼매론' 중생 구도 중시

정천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명효의 〈해인삼매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라 명효 스님의 〈해인삼매론〉은 〈화엄경〉 '십지품(十地品)'의 요지인 '해인삼매(海印三昧)'를 논술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천 스님은 〈해인삼매론〉의 사상적 배경과 내용, 수행 등을 분석하고 의상의 〈일승법계도〉와도 비교점을 살폈다.

정천 스님은 〈해인삼매론〉을 지은 명효는 도인(圖印) 내 게송의 뜻을 다라니라고 하고, 이를 법(法)과 의(義)로 해석한다고 봤다.

또한 〈해인삼매론〉의 구성은 의상의 〈일상법계도〉와 유사하지만 지향점이 다르다고 봤다. 의상은 〈일상법계도〉에서 '부처해인(佛海印)'을 말했다면 〈해인삼매론〉은 '중생해인(衆生海印)'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천 스님은 "의상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했다면, 명효는 중생이 깨닫는 과정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여래장 사상, 〈능가경〉 근본"

승행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은 '〈능가경〉의 여래장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능가경〉은 유식과 여래장사상을 융합한 경전으로 생각하지만, 스님은 "〈능가경〉의 근본과 궁극에는 여래장 사상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능가경〉 '여래무아장'은 〈승만경〉 · 〈보성론〉의 여래장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여래장'이 유식사상의 법계일원론에 의해 설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승행 스님은 "이런 주장은 공성에 마음이 미혹된 유가행자의 단멸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여래장'은 부공의 불법들을 본래 갖추고 있는 무위법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대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식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래장사상을 보조적으로 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식사상의 단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래장사상을 융합해서 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승기신론' 통해 본 수행 전통

지세한(대학원 불교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대승기신론소〉별기에 나타난 수행차제관 연구'를 통해 인도불교의 수행차제론을 〈대승기신론〉과 원효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불교의 전승에서 보이는 동아시아의 독자적 수행전통을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대승기신론〉은 상좌부와 대승불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이론들을 섭렵한 것으로, 특히 원효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疏)와 별기(別記)를 통해 인도의 성문 · 보살도 수행과 중관, 유식사상을 포용시켰다.

지세훈은 "깨달음을 얻은 이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에게 회향하는 이타행, 즉 부주열반 사상이야 말로 원효가 그의 많은 저술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위의 선악, 결과인가 동기인가

이호경(대학원 불교학과)은 박사학위 논문 '업설의 실정형법적 연구-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통해 불교의 업설과 현대사회의 실정형법을 동기론과 결과론의 관점으로 비교 · 고찰했다.

저자의 문제 제기는 업(행위)에 따라 나타난 선악의 평가 기준인 동기론과 결과론에 있다. 그는 경전의 사례를 동기론과 결과론으로 분석하고 현대의 실정형법에도 적용해 살폈다.

이호경은 "인간 행위를 지나치게 동기주의적으로 바라본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리를 지향하는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관학당 '중론' 강독 강좌 종로 법련사 9월 20일 개강

〈중론(中論)〉을 강독하며 중관사상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대표 신상환)은 가을 학기 〈중론〉 강독 강좌를 진행한다. 개강은 오는 9월 20일이며 10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서울 종로 법련사 2층 강당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강사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맡는다. 신상환 대표는 인도 타고르 대학의 인도-티베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티베드 스님 등에게 중관사상을 가르쳤다. 용수의 6대 저작 모음인 〈중관이취육론(中觀理聚六論)〉, 〈티베트 현자의 말씀〉 등을 우리말로 옮긴 역경사이기도 하다.

이번 학기에는 〈중론〉 제24~27품까지 다루며, 1주차에는 1~23품에 대한 복습이 이뤄진다. 또한 인도-티베트 불교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 한역의 특징도 같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중론〉 강독 강좌는 선착순 40명이며 수강료는 총 6강 15만원이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고려 '대승법계무차별론' 보물된다

문화재청 8월 28일 지정예고
안성 칠장사 대웅전 29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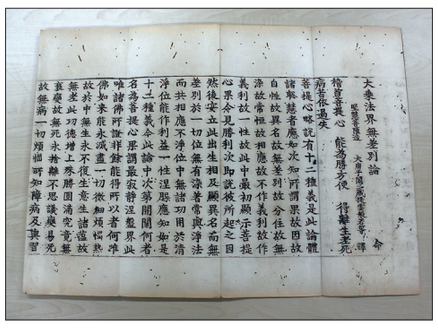
고려시대 인출된 절첩 형태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 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비롯해 〈경주부사선생안〉 〈경상도영주제명기〉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경전이다.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고 제첨(題簽, 표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제목을 써서 붙임)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대승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의 교리



를 밝힌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도의 승려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若) 등이 7세기 말에 한역(漢譯)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권 1첩으로 조성됐으며 서지학적 형태, 본문의 구성 체계와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 등으로 미뤄 거란본 대장경을 교감한 경전을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재조본 대장경 중 절첩(折帖, 병풍처럼 펼쳐서 보는 책)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이라며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와 서지학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시대부터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기록한 전적이며 〈경상도영주제명기〉는 고려~조선 경상도관찰사 부임자 명단의 기록물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8월 29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114호인 칠장사 대웅전을 안성 칠장사 대웅전으로 명칭 변경 후 보물 제2036호로 지정했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서, 경기도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9월 20일 가을 논문 발표회

불교와 수행을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내는 신진 학자들의 논문발표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9월 20일 오후 1시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 학술세미나실에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불교와 수행을 읽는 시선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신진학자들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은 △'염(念, sati)과 견(見, diṭṭhi)- 지 · 관(止 · 觀) 구분의 기준에 대하여(우동필, 전남대)' △'〈법화경〉에서의 사리불의 위상에 대한 소고- 사리불은 퇴보리심성문인가, 응화성문인가(하영수, 금강대)' △'초기불교 명상수행에서의 실천적 중도 위상의 구현(김근중, 동원과학기술대)' △'육입(saḷāyatana)설을 통해 본 열반(nibbāna)의 실존적 측면에 관한 고찰(이은정, 경북대)' △'쇼펜하우어의 불교관에 대한 비판(윤동주, 경북대)' 등이다.

논평자로는 서현희(서울불교대학원대학), 윤종갑(동아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인생 네비게이션! 제갈량의 지혜 익히고 미래 보는 눈, 慧眼(혜안) 여는 과정에 초대합니다.



원장/주임교수 爽廈(석하) 소 재 학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석박사과정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교수
KOFS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및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ROTC중앙회 부회장 겸 논설위원, KAIST S+ AMP수료
건곤(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한국풍수문화원 원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충북) 자문위원
Earist University SAP학장 역임, 4차산업혁명포럼 고문
동방대학원 교수/ 발전위원장 역임, 미래예측포럼 고문
한컴그룹 자문, 서울신문STV그룹 고문, GFCA 원장
동양미래예측/ 풍수지리 컨설팅그룹 회장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찾는 지혜,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제9기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9월 5일 목(木) 개강 및 공개 특강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과정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마스터 과정

·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 과정
· 慧眼(혜안)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명리학, 왕초보도 1년이면 OK!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다.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 근거없는 비법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론 정확한 성립원리 공부
· 인연법, 궁합법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 정확히 분석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 타고난 선천 성격 진로적성 분석법
· 현대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강사 및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렵지 않게 성공시기 분석



※수업 매주 목(木) 18:30 ~ 21:00

풍수도 논리로 푼다. 공간(空間)의 철학 자연과학 풍수지리(風水地理), 제6기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9월 9일 월(月) 개강 및 공개 특강

내 땅 내가 본다. 풍수지리의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비법 찾아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없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 수업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 지도교수 노승우 박사 | 지도교수 세 준 박사 | 지도교수 지종학 박사

· 100세 시대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학문
· 부동산 풍수, 양택 풍수, 음택 풍수, 기(氣) 풍수, 생기(生氣) 흐르는 좋은 자리 찾는 법, 살기 수맥 피하고 막는 법 외

※수업 매주 월(月) 18:30 ~ 21:00

2학기 과정 (마스터까지 무료 재수강 가능) GFCA 사무국 www.gfca.kr 02-585-0079 교육상담